

인권선언 웹진 6호

by 인권선언416 posted SEP 10, 2015



416인권선언에서 발행한 여섯 번째 웹진입니다(2015/09/07) 브라우저에서 잘 보이지 않으면 클릭해주세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웹진 6호

구월은 풀뿌리 토론에 박차를 가하는 달
풀뿌리 토론을 여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그럼에도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하는 당신
416 이후의 사회는 이렇게 오겠지요 :)
추진단을 응원합니다

4 16인권선언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16인권선언 실행팀입니다.
낮에는 여름, 밤에는 가을인 날씨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세요!

많은 분들이 4.16연대와 4.16인권선언 추진단에서 준비한 연속강좌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의 아쉬움을 덜기 위해 강좌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9월은 풀뿌리 토론을 진행하는 달! 잊지 않으셨죠? 많은 곳에서 다양한 분들이 풀뿌리 토론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관련한 소식은 홈페이지 풀뿌리 토론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풀뿌리 토론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 인권선언 실행팀에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풀뿌리 토론을 진행하시기 위해 필요하신 부분이나 보완했으면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꼭꼭 채워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풀뿌리 토론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알려주시면 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실행팀 드림

풀뿌리 토론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인권선언을 함께 하는 추진단이 궁금해! 추진단 릴레이 인터뷰 :)



"우리의 활동으로 지금 당장 세상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통해 내가 변한다면..."



"좀더 일찍 시작했으면 반응이 지금보다 좋았지 않을까 싶지만, 늦었다고 시작할 때가 제일 빠르니까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자기 주변을 돌아봐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국내외의 경계같은 것을 허물게 하는거죠.."

조금 더 토론하고싶다면: 읽을거리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재난시대의 혐오_손희정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치유와 회복은 피해자들의
권리다_박진

4.16 인권선언 운동 8월 활동 경과 보고

우리동네 풀뿌리 토론 찾아보기

- * 9월 9일 대학생 풀뿌리토론 워크샵(서울)
- * 9월 12일 장애와여성상상마실 풀뿌리 토론(서울)
- * 9월 14일 수원여성회 장안팔달구 모임(경기)
- * 9월 11일 용인지역 풀뿌리 토론회(경기)
- * 9월 20일 보건의료학생'매듭' 풀뿌리토론회(서울)
- * 9월 17일 416인권선언 실행팀이 준비한 풀뿌리토론(서울)



Copyright © 2015 416인권선언, All rights reserved.

416인권선언에서 보내는 추진단에 보내는 웹진입니다.
원치 않으시는 경우 하단의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수신방법설정 수신거부

TAG #웹진

[웹진6호] 4.16연대-민변 노동위원회 인권선언 토론회 후기

by 인권선언416 posted SEP 07, 2015



4.16연대-민변 노동위원회 인권선언 토론회 후기

조연민(민변 노동위원회)

지난 8월 26일에 민변 사무실에서 4.16연대와 민변 노동위원회의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1일에 수운회관에서 있었던 4.16 인권선언 추진단 1차 전체회의에 다녀온 이후 인권선언의 진행 경과가 궁금하던 차였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감 그리고 책임감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토론회는 김혜진님께서 먼저 인권선언 제정운동의 의미에 대해 소개해 주시고, 이후 장정훈님의 진행으로 인권선언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참가자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추진단 1차 전체회의 때에도 느꼈던 바지만, 인권선언이 단순한 하나의 이벤트에서 그치지 않도록 그 의미를 잘 새기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 인권선언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느꼈던 '억울함'이라는 막연한 감정을 '부당함'이라는 구체적인 인식으로 바꾸는 작업"이라는 점에 특히 동감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부터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느껴 왔던 분노와 참담함을, 이제는 소리높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형태로 재구성하자는 것이 인권선언의 출발점임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다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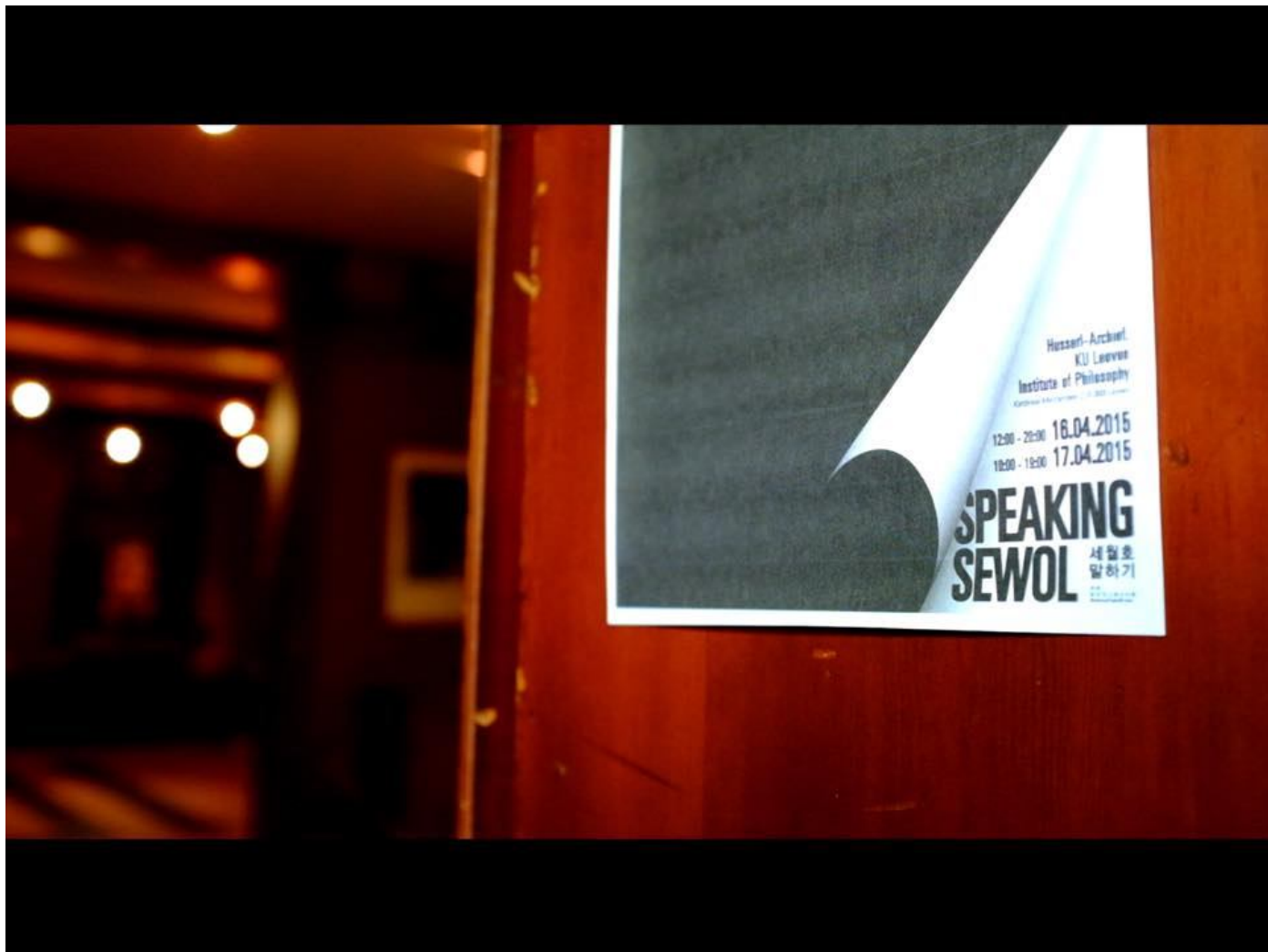
토론 과정에서는 인권선언문의 구성 방식에 관한 이야기가 주된 주제로 논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막연히 '헌법이라든지, 아니면 굳이 실정법이 아니더라도 유명한 선언문들을 참조하면 편하지 않을까'하고만 생각하던 차였는데, 토론 자료에 담긴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선언,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 세계인권선언 등을 보면서 선언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그 형식과 내용이 매우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단순히 권리에 관한 조항만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인권선언의 특수한 목적과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전문, 용어 정의, 원칙, 권리 목록 등의 각 부분이 상호 유기적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차디찬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둘러싼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이 요원한 채로 남겨져 있을뿐더러,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가차 없는 탄압마저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오늘도 여러 지역,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풀뿌리 토론이 모여 만들어낼 인권선언이 암울한 상황을 타개하고 보다 존엄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AG • #웹진, #풀뿌리토론, #후기

[웹진 6호] 벨기에에서 온 편지

by 인권선언416 posted SEP 07, 2015



Part 1.
눈으로
만지기
: 전시
"Exhibition:
Touching
with Eyes"
(Painting,
Photograph, Film,
and Installation)

김민우
박효재
안민욱
이슬기
최진아
최예지

Part 2.
세월호와 나
: 세미나
"Sewol and I: Presentation
(in Korean)"
*18:00 - 19:00
김광철
양성현

Husserl-Archief,
KU Leuven
Institute of Philosophy
Kardinaal Mercierplein 2, B-3000 Leuven

12:00 - 20:00 **16.04.2015**

10:00 - 19:00 **17.04.2015**

SPEAKING
SEWOL 세월호
말하기

주관:
트리피스트수다회
jhakang@gmail.com

트래피스트 수다회* 1차주제

세월
호
기억
하기

Trappist League of

주관

트래피스트 의열단*

(Trappist League of Fervent Justice)

일시

6월 27일

금요일 오후 7-9시

장소

Room Galapagos (2F)

Agora, KU Leuven

Leuven

(E. Van Evenstraat 4

B-3000 Leuven)

Fervent Justice

발표자

1. 엄형식 (Université de Liège 사회학)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의 역습 - 분노하자!'
2. 강성경 (Hasselt University 의학통계)
'슬픔의 공집합'
3. 양성현 (KU Leuven 철학)
'리피르의 윤리학'

학생 뿐만 아니라 관심있으신 분 모두 참가 가능
합니다. (다만 진행은 한국어로 이루어집니다.)
포럼에 참가하실 분들은 Agora 입장을 위해 사
전 명단 등록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참가
등록 부탁드립니다.

<http://doodle.com/bw4fz3rnxiagp7x>

종강모임

일시 : 6월 27일 금요일 오후 9시 (포럼 종료 이후)

장소 : KU Leuven, Pangaea Bar

(Vesaliusstraat 34, 3000 Leuven)

음료는 개별 구입

상황에 따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뜻깊은 모임을 하고, 방학 전
함께 인사하고 소식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래피스트 의열단 : 세월호를 잊지 않기위해 시작되었으며, 벨기에에서 자유롭게 대화하고픈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트래피스트 수다회 :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벨기에 한인 학생 모임입니다.



[벨기에에서 온 편지]

지난 7월 11일 4.16인권선언 전체회의에 참가하셨던 강지하 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벨기에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을 알려주셨는데요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웹진에 넣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소식을 전해주시길 기대하면서! ^^

안녕하세요

메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벨기에 루벤 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강지하라고 합니다. 여름을 맞아 한국에 오게 되었고 416 인권선언 전체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KU Leuven 학생들을 중심으로 벨기에 리에주, 하셀트, 브뤼셀 등지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과 토론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세월호 1달 추모회 "세월호 기억하기"를 시작으로 매달 한번 모여 토론하는 모임이었는데요.

세월호를 계기로 시작되었고, 세월호가 중심주제이지만, 그로부터, 인권 (아감벤의 호모사케르 읽기), 외국인으로서 사는 것, 갑을 문제, 예술과 정치_죽음과 기억을 중심으로, 시선의 문제, 신자유주의, 윤리학 등등 거창해보이지만, 세월호와 관련된 현상을 다방면에서 접근하고 하는 시도를 해본 것 같습니다.

이번 7,8월은 여름 방학이라 학생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있어서 쉬고 있는 상태고 9월에 다시 시작될 것 같구요.

2015년 4월 16일에는 8명의 예술가들과 3명의 철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세월호 추모 전시/학술토론을 가져보았습니다.

주벨기에 한국대사관/문화원 등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작품 제작하고, 전시한 전시였구요.

마지막 학술토론 후 식사 시간에는 40-50명이 참가해주셔서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전시 자료와, 글들을 모아 도록으로 만들어 볼까 했는데, 동력이 떨어졌는지 진행은 더디네요.

활동하는 지역이 벨기에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멤버들이 한국에 나와있어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전체회의에서, 먼 이국 땅에 떨어져 저희 끼리 했던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

구나, 이들이 리더가 되어
수천명의 의견을 모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저희가 했던 토론회, 전시 등에 대한 자료도 첨부해봅니다.

<https://www.facebook.com/events/1084431944906180/>

감사합니다
강지하 올림

 #웹진

[웹진 6호] 추진단 인터뷰 15. 마을활동가 박미정님

by 인권선언416 posted SEP 07, 2015





1. 자유롭게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어떻게 소개를 해야 할까요? 마을 내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마을 활동가 박미정이라는 소개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2. 어떤 계기로 동네에서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촛불을 들게 되셨나요?

동네에 뜻이 맞는 분들과 몇 년 째 '차없는 도로'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작년에 행사를 얼마 앞두고 세월호 참사

가 터졌어요. 행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죠. 그때가 광화문에서 집회가 크게 열리던 시기여서 우리도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행사를 벌여 놓은 상태고, 다들 애엄마니까 저녁에 멀리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래서 동네에서 우리끼리라도 촛불을 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엔 얼마나 같까 싶었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될지도 몰랐죠.

저희가 시민사회단체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애 키우는 엄마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수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아파트 사이 도로에서 촛불을 들다가 아파트 중앙분수대로 나가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기까지 많은 용기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광화문 집회에 참여도 하고, 때마다 서명전도 하고. 겨울에는 핫팩 들고 모이고, 촛불이 여의치 않으면 집에 모여서 함께 얘기라도 나눴어요. 그러다가 올 초에 큰 길가에 있는 생협 앞으로 나가보자는 논의가 있었고, 지금까지 매월 16일 그 곳에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3. 동네에서 촛불을 들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고민됐던 점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촛불을 드는 시간이 오래 되면서 조금씩 지치는 부분이 있었죠. 눈에 보이는 결과도 없고, 진상규명도 안되고. 답답했어요. 변화가 없으니까. 현실적인 고민들도 있었죠. 다들 엄마들이다 보니 애들도 챙겨야 하고 각자의 삶의 무게도 버겁잖아요.

1주년 시위에 참여했을 때, 경찰들이 막는 걸 보고 너무 속상해서 목 놓아 울었어요. 그 후에 무기력감을 느껴서 한 달 반 정도 촛불을 쉬기도 했어요. '내가 이거 한다고 바뀌는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4. 칠보 촛들이 오랜 시간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말고도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한동안 못 나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촛불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가 눈에 띄게 확 준 적은 없어요. 누군가가 못 나오면 누군가는 다시 나오고, 그렇게 꾸준히 촛불을 들었어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마음이 든든했던 것 같아요.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마음은 늘 함께라고 생각해요. 촛불에 못나오면 미안해하면서 반찬이라도 가져다주고 서로서로 챙겨주거든요. 서로를 이해하고 위하는 마음이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5. 동네에서 촛불을 들면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한 엄마가 세월호 후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단식을 했어요. 그런데 단식을 하면서 건강이 좋아져서 임신을 하게 됐죠.^^ 애기가 태어난 지 이제 몇 개월 밖에 안됐어요, 저희는 그 아기를 '촛불둥이'라고 부른답니다.

6. 마지막으로 인권선언을 함께 만들어갈 추진단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인권선언 풀뿌리 토론을 인권이 무엇인지 좀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세월호를 인권으로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 진상규명 등 세월호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 인권선언 풀뿌리 토론이 세월호 참사 후 각자가 경험한 상처를 고집어내면서 이야기하고,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경험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세월호와 관련된 많은 활동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활동으로 지금 당장 세상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통해 내가 변한다면, 아주 작은 걸음이지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웹진 6호] 추진단 인터뷰 16. 오영주님

by 인권선언416 posted SEP 07, 2015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천주교인이고, 평범한 주부였어요. 동네에서 성당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하고 지냈어요. 세월호 참사에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았어요. 아들, 딸이 있는데 세월호 참사로 떠난 아이들과 비슷한 연배예요.

2. 416 관련해서 함께한 활동을 들려주세요.

참사 직후엔 광화문에 나가 불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신부님들이 광화문에서 단식하시고 미사하시는 모

습을 보고 함께하게 됐어요. 광화문에 가보니 상황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런 계기로 함께하게 됐어요. 종교인 천막이 있어서 거기서 같이 활동을 했어요. 작년에 목주도 만들고 목도리도 뜨고 했어요. 사람들이 좀더 광장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했어요. 요즘도 광화문에 자주 나가려고 해요. 수요일 미사 있는 날엔 꼭 가고, 일주일에 2~3분 미수습자 가족 분들 피켓팅도 최대한 같이하려고 하구요.

3. 인권선언은 어떻게 함께하시게 됐어요?

저희 성당에서는 종교적으로도 이 참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신부님이나 성당 분들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같이 하게 됐어요. 광화문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상관없는데 지역에서의 냉담한 느낌들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선언 생기고 나서 지역별로 풀뿌리토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여하게 됐어요.

광화문에도 가고, 이렇게 같이 해야 힘도 얻고 그래요. 혼자 있으면 나만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름 현장에 다닌다고 다녔는데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4. 인권선언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난 7.11 전체회의에 참석했었는데 좋았어요. 가족 분들과 함께 얘기를 했는데, 서로 이해할 수도 있고 좋았어요. 오늘(9월 3일) 지역 간담회가 활성화되면 고양, 파주 지역에서 퍼져나갈 수 있게 해야죠.

지난 전체회의에서 모인 사람들이 앞장서서 풀뿌리토론으로 퍼져나가자고 했고 그래서 지역 모임도 하는거구요.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좀더 일찍 시작했으면 반응이 지금보다 좋았지 않을까 싶지만, 늦었다고 시작할 때가 제일 빠르니까요.

TAG •

#웹진, #추진단인터뷰

[웹진 6호] 추진단 인터뷰 17. 국제개발협력 활동가 문도운님

by 인권선언416 posted SEP 07, 2015



1.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이라는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첫 직장이고, 일한지는 3년 차가 됐습니다. 빈곤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원에서는 국내 빈곤 문제를 연구했고요, 그 뒤로 국제 빈곤 문제가 제 일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쪽으로 관심을 확대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2. 세월호 인권선언 이전에 세월호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개발협력 활동가들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 뭔가 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서 2014년 5월경부터 서명운동에 동참했어요. 세월호 관련 활동을 하던 단체들이 종로랑 홍대·합정 쪽에 일부 있었는데, 저는 홍대역이나 합정 쪽에서 퇴근 시간대나 주말 오후에 가판대 설치하고 서명 운동에 참여했어요. 일주일에 한두번 매주 했었어요. 서명 운동 끝나고 나서는 세월호 집회에 나가거나, 집회 후에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회의에도 나갔어요. '행동하는 힘'이라는 모임에서도 활동을 하였는데요. 이 모임이 처음 등장한 건 2014년 1월 철도 민영화 반대 집회에서였어요. 그 때 민영화에 반대하는 개발협력 활동가들이 활동하는 힘이라고 쓰인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갔어요. 그러다가 4월에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그쪽으로 힘이 모였고, 서명 운동도 '행동하는 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했어요.

3. 세월호 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행동하는 힘'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주로 행사 소식들이 공유되는 방인데, 여기서 세월호 인권선언 추진단을 모집한다는 것도 여러 번 공유가 됐었어요. 처음에는 추진단을 하기가 부담스러웠어요. 풀뿌리토론같이 어떤 행사 하나를 주최 한다는 것이 꽤 커다란 일이고, 제 업무를 하면서 짬짬히 행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단체 카톡방에 반복해서 추진단 모집글이 올라오고, 추진단에 기존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계속 참여해달라고 부탁 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한 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단이 되었고 전체회의에도 나가게 되었어요.

4. 개발협력 단체 활동가들이 합동으로 국제개발협력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풀뿌리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행동하는 힘' 단체 카톡방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4명이 풀뿌리 토론회를 한 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고, 팀을 꾸리면서 풀뿌리 토론회를 시작했어요. 단체 카톡방 안에 있던 70명에게 토론회 공지를 하면 반응은 올 줄 알았는데, 15명만 참가 신청을 해주셨어요. 다들 업무나 출장으로 바쁘셨어요. 그 때문에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당일 참석자 분들 만나 보니 위안이 되었어요. 토론회 때 진지하게 세월호 관련 영상도 시청하고, 유가족 어머님 말씀도 듣고, 진지하게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이야기들이 몇 개 있어요. 토론회에서 나왔던 급진적인 의견들이에요. 어떤 분은 국가에 저항할 권리를 말씀하시면서 세금 납부를 거부할 권리나 대통령을 불러낼 권리 같은 것들을 제안하셨어요. 또 참석자 중에서 어떤 젊은 분이 '말을 듣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인상 깊었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들어도, '왜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해?'라고 한 번 물을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매우 큰 데, 우리나라는 되묻기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 처음 추진단에 합류하실 때 4·16 인권선언은 "우리 사회의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 안에 굶아있던 문제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문제점들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그 뒤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인권선언을 계기로 사회가 새롭게 변화를 향해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한 말보다는 추진단이자 같이 개발협력분야에서 활동하는 윤지영님이 하신, 4·16 인권선언은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다"라는 말이 더 마음에 들어요. 세상은 언제나 불평등하고 부조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우리가 최후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월호 참사 때 이런 가치들이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사실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것들을 개발협력 업무 때 서류로 많이 접하기는 하는데, 진지하게 그 의미를 생각할 계기는 없었어요. 세월호 참사 때 인간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나니 그 의미가 피부로 와 닿았죠. 4·16 인권선언을 기점으로 그것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봐요.

6. 개발협력 활동가로서 왜 인권선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먼저, 활동가이기 이전에 저는 세월호 참사가 사회가 급성장하면서 부, 속도, 효율만 중시하고 안전과 같은 중요한 가치를 간과해서 생긴 일이라고 봐요. 인권선언은 이제껏 간과한 가치가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걸 확인하는 계기라고 생각해요. 또, 인권선언을 하면 그것이 공식적인 문서로 역사에 남고, 훗날에도 사람들이 세월호를 기억할 수 있게 해줄 거라 생각해요.

개발협력 활동가로서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어떤 일에 인권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식량·식수 사업 같은 개발협력 사업의 경우, 당장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일회성 사업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인권 기반 접근을 도입하면 식량, 식수 지원이 그것을 받는 사람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고, 또 이 권리를 책임지고 충족시켜줘야 할 주체(예컨대 정부)가 있음을 확인하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인권 기반 접근은 어떤 사안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원을 받는 약자들의 인권

신장에도 효과적이고요.

7. 마지막으로 416 인권선언 추진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저와 같은 개발협력 활동가들은 국제적인 사안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자기 주변을 돌아봐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개발협력활동가들은 세월호와 관련해서 보다 많은 일을 하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그것이 업무 밖의 일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몸 따로 마음 따로인 경우가 많아요. 개발협력 활동가들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무엇을 할 수 있지?' 라는 괴로운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실제 행동은 많이 못하더라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추진단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와 관련해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던져주시면 차근 차근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도운님이 진행하셨던 풀뿌리 토론회 사진

TAG •

#웹진, #추진단인터뷰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재난시대의 혐오

손희정



[편집인 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은 참사 당일에 벌어진 일을 복기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4.16연대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추진하며 인권으로 4.16을 기억해보자고 제안한다. 기억은 행동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열망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 <인권오름>과 <프레시안>에 매주 공동 게재되는 연재기사가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재난의 시대를 산다. 위험은 도처에 널려있고, 이내 재난으로 닥쳐온다. 재난은 제대로 예측되지도 수습되지도 않기 때문에 위기감은 일상이 되었다. TV 드라마나 영화, 소설, 웹툰 등 대중문화는 지속적으로 재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매일 매일이 재난에 대한 보도로 가득차 있다. 갈수록 재난과 파국에 대한 상상력이 확대되는 것은 우리의 세계가 그렇기 때문이다. 과거에 재난이 인간 외부, 즉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이었다면, 이제 재난은 내부와 외부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문명으로부터 온다. 예컨대 쓰나미라는 자연재해가 방사능 유출이라는 인공재해와 만난 후쿠시마 원전 참사는 우리 시대 재난의 성격을 고통스럽지만 정확하게 보여준다.

물론 지난 20여 년 간 한국 사회를 사로잡았던 재난의 스펙타클은 조금 더 인공적인 재난에 집중되어 있었다. 1993년 서해 페리호 대형 참사로부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7년 IMF, 1999년 화성 씨랜드와 인천 호프집 화재 사고,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용산참사,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에서 펼쳐진 재난의 스펙타클은 그야말로 '화려'했으며, 이 모든 참사는 인재(人災)였다. 참사의 반복은 그 절절마다 국가가 선보였던 대책들이 아무런 실효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2015년, 우리는 그 모든 재난의 상처를 안고서 '포스트 416'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재난의 시대'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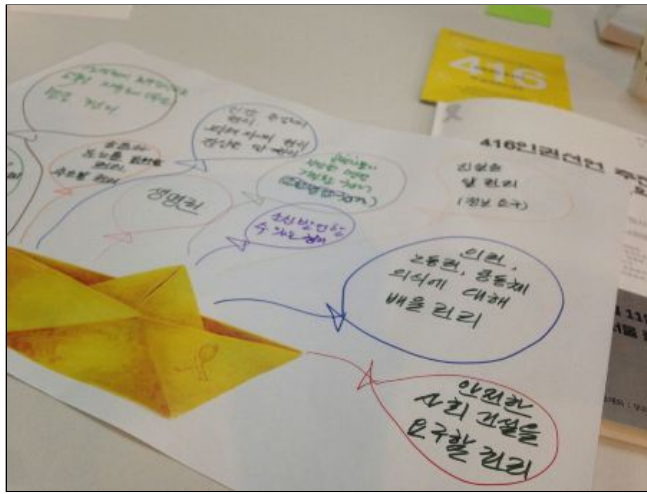
재난의 시대

그러나 재난의 반복이 '재난의 시대'를 규정하는 전부는 아니다. '재난의 시대'라는 것은 무엇보다 자본주의라는 삶의 조건이 재난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는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철학자 한병철은 "침몰한 세월호는 한국인민의 문제가 아니며, 가라앉는 배를 탈출한 선장은 공공심을 그쳐 망상이게 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육신"이라고 말한다. 세월호의 원인은 "규제완화, 노동 유연화, 민영화를 야기한 신자유주의"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규정짓고 있는 신자유주의라는 체제는 세월호 참사를 이미 예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그리고 그 당대적 판본인 신자유주의의 성격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세월호'는 언제고 어디에서고 다시 우리를 덮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재난의 시대'란 이 세계 자체가 재난에 근거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현대를 '위험사회'라고 규정한다. 위험사회란 '통제 불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사회다. 근대 이전에 위험이란 자연에 의해 야기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면, 근대에 위험은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의 원칙으로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상상되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자연 정복에 대한 욕망은 근대에 이르러 탈성된 듯 했다. 그러나 현대는 더 이상 "스스로 산출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속시킬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인류의 자랑이었던 문명은 이제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적절한 보호책을 마련할 수 없는 위험"을 불러온다(벡; 2012, 22쪽). 자연을 예측하고 그 위험을 다스리고자 오랫동안 투쟁해 온 인간은, 역설적으로, 기술 발전이나 생산성의 급증과 같은 문명의 혜택으로부터 비롯되는 재난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다.

위험은 어떻게 분배되는가

그런데 현대의 위험은 평등하지 않다. 벡에 따르면, 우리 시대의 위험은 '결핍사회'에서 부(富)가 분배되었던 위계와 질서를 따라 분배된다. 위험이 실현된 것인 재난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은 '공평하게' 닥쳐오지 않는다. 한국사회의 대형 참사에서 10대에서 20대 초반에 이르는 청소년 피해자가 특히 많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누가 더 빈번하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한다(이동연; 2014, 23쪽). 이때 '승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근대화가 생산해 온 위험은 "거대한 사업거리"다. "위험은 경제학자들이 오랫동안 찾아 온 탐욕스러운 수요"인 것이다. "굶주림은 채워질 수 있으며 공핍도 채워질 수 있으나, 문명의 위험은 밀빠진 독과 같은 수요를 가지고 있어서 충족될 수 없으며 무한히 자가 생산될 수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온갖 위험에 대한 위험 뒤에 따라붙는 보험 광고를 흔하게 본다. 미리 미리 대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보험이란 재난의 예방과는 무관하다. 보험은 재난에 대한 예측을 통해 장사를 하고, 그 예측이 현실이 되었을 때에는 가능한 지불을 유예시킨다. 보험이야말로 위험과 재난이 어떻게 시장을 만들어내는지 잘 보여준다. 위험의 확산과 상업화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린다."(벡; 2006, 58쪽.) 이처럼, 위험의 상존과 재난의 발생은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된다. 뉴올리언스의 허리케인 수해는 한 예다. 뉴올리언스가 카트리나로 초토화되자 재개발에 명을 걸었던 기업들과 공공영역 민영화를 추구했던 정치인들은 그 이해를 함께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동남아시아 쓰나미 이후 서구 자본이 유입되었던 경과, 남아프리카 해안의 서구 자본 유입을 반대했던 원주민들이 자연재해 이후 결국 그 자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에서 재난은 빈번하게 자본의 방법론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재난 자본주의'(나오미 클라인; 2008)다. 재난 자본주의에서 재난은 "시장을 만들 수 있는 흥미진진한 기회"가 되며, "공적 영역에 대한 조직적 공격"을 통해 신자유주의화를 가속화한다. 재난은 신자유주의화의 계기가 되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자유주의 시대의 삶의 조건은 다시 재난을 조래한다. '악순환의 고리'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 4.16 인권선언 풀뿌리 토론 (출처: 4.16연대)

안전이라는 판타지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 재난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채로 지속되면, 이는 사회적 위기가 된다. 그리고 공유된 위기감은 인간 존엄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폐기해 버리는 반동적 복고주의의 도래를 불러온다. 사람들이 불안감 속에서 “자유나 평등 같은 근대적 가치보다 ‘안전’을 갈구”하게 되기 때문이다(문강형준; 2012, 22쪽). 유동성의 시대를 견뎌낼 견고한 세계관, 무너지는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구조적 안전망, 나의 불안을 잠재우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문화와 정서. 대중은 이와 같은 것들을 생명을 사지로 내모는 지배적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함으로써가 아니라, 전통적인 질서, 이미 익숙해서 이해하기 위해 따로 애쓰지 않아도 되는 신념 체계, 그리고 이미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득권의 인정 등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것들에서 찾으려 한다. 안전하다는 감각은 기존의 질서가 유지되고 그 질서를 유지해 온 권력에 의존할 때 더 쉽게 획득되기 때문이다. 상실의 고통이 경제 논리에 의해 간단하게 밀려나는 것 역시 우리가 이런 ‘쉬운 길’을 택하기 때문이 아닐까. 고통은 구체화되지 않지만, 경제는 쉽게 수치화되어 보여진다. 그리고 이런 경제논리란 한국 근대화 안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그 설득력을 갖춰왔다.

그리하여 재난 희생자들은 ‘우리’로부터 배제되어 ‘타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확인할 때에야 우리는 안전이라는 판타지에 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고통을 말하고 체제에 문제를 제기하며 함께 일어날 것을 촉구한다는 이유에서 또다시 ‘이방인’이 된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정답이어야 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러 기억해야 한다고, 이 재난의 폐해를 응시해야 한다고, 그렇게 ‘여기’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들은 불편하고 번거로운 존재들일 뿐이다. 그렇게 우리 사회는 재난의 피해자/희생자들을 ‘우리’로부터 배제되어야 하는 혐오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혐오는 어떻게 생산되나

국가 역시 재난을 체제와 구조의 문제에서 건져내어 재빠르게 개인의 문제로 만드려는 노력 안에서 혐오를 조장한다. 그렇게 세월호는 ‘일개 교통사고’가 되고, ‘유병언이라는 부도덕한 개인만의 책임’이 되며, 특정 정치세력이 정쟁의 기회로 삼는 오염의 장이 되거나, 일부 유가족이 생떼를 쓰는 물지각의 공간이 된다. 예컨대 특별법을 제정하면 국가의 질서와 안위가 무너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법석을 떠난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이런 혐오의 수사는 대중들에게 의외로 쉽게 스며든다. 세월호와 혐오를 말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폭식투쟁이나 ‘세월호맹’ 같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폭력의 장면을 떠올리지만, 이런 예들의 나열은 세월호를 둘러싼 혐오의 정서를 예외적 사건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나 극악한 그 표층을 걷어내고 나면, 기실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의 정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혐오의 정서 안에서, 우리는 상실을 충분히 슬퍼할 ‘권리’를 박탈당한다. 슬픔은 분노와, 분노는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그 슬픔을 차단하고 혐오와 허무주의적 냉소로 분노를 희석시켜 버릴 때, 우리는 세월호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기 힘들어진다.

폭식투쟁을 하거나 ‘세월호맹’ 운운하는 일베와 일부 물지각한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바로 ‘재미’다. 아니, 오늘날 재미야말로 누구에게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한때 ‘웃음’은 세계를 뒤집는 불온한 것이었지만, 이제 웃음은 세계가 생산하는 모순과 고통을 잊게하는 손쉬운 만병통치약이 되었다. “농담은 농담일 뿐”이라는 말은 농담을 농담일 수 있게 하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배경들을 보지 말라는, 그야말로 ‘가만히 있으라는’ 강요에 불과하다. 이렇게 재미와 웃음, 힐링을 통한 행복의 추구가 정언명령이 된 시대에, 슬퍼하고, 애도하고, 분노하는 것은 그저 ‘노잼’일 뿐이다. 우리는 ‘노잼’이 슬픔과 분노를 반사시켜버리는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불온한 것으로서 웃음을 되찾고, 그 웃음과 함께 충분히 슬퍼하고 정당하게 분노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 그것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과정으로서의 4.16 인권 선언의 일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 참고문헌

나오미 클라인, 『쇼크독트린』, 김소희 역, 살림Biz, 2008.
 문강형준, 「왜 ‘재난’인가? - 재난에 대한 이론적 검토」, 『문화/과학』 72호, 2012.
 율리히 벡, 『위험사회』, 홍성태 역, 새물결, 2006.
 율리히 벡, 『글로벌 위험사회』, 박미애·이진우 역, 도서출판 길, 2012.
 이동연, 「재난의 통치, 통치의 재난」, 『문화/과학』 79호, 2014.

덧붙임	손희정님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입니다.
관련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참사 500일, 이제 '라도' 인권할 시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혐오로 표현할 수 없다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치유와 회복은 피해자들의 권리다

박진

트윗

좋아요 0

[편집인 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은 참사 당일에 벌어진 일을 복기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4.16연대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추진하며 인권으로 4.16을 기억해보자고 제안한다. 기억은 행동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열망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 <인권오름>과 <프레시안>에 매주 공동 게재되는 연재기사가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1. 참사 이전으로 회복하도록 치유 받을 권리가 있다.

참사 이전으로 회복할 권리, 치유 받을 권리. 그러나 가능할까? 시간을 되돌리지 않는 한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올 수도, 참사 당시의 참혹한 기억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렇기에 정부와 사회는 참사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다양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사와 재난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한국사회에서, 피해자는 광범위하다. 모든 이들이 재난 위험군에 속해 있다. 힘이 없거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일수록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치유와 회복 절차는 피해자 중심이 아니며 일방적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회복과 치유를 위한 피해자 지원과 추모 과정은 구조 실패의 연장선에 있었다. 지원대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상과 보상(이하 배·보상) 절차는 피해자들을 이중 고통에 빠트렸다. 피해자 지원을 금액으로만 환산한 까닭이다. 언론은 시시각각으로 액수를 공개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데 일조했다. 모욕은 정부와 정치권에 의해 조장되었다.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로 인식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참사 이후 피해자들은 새로운 심리적 외상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피해자 간 차별도 심각하다. 기간제 교사는 순직조차 인정받지 못했으며 민간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심지어 민간잠수사는 해경을 대신해 형사 범정에 기소되었다. 추모사업 역시 공경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기억 사업은 추모리본을 다는 것조차 범죄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피해자 중심 치유와 회복 과정은 없었으며 오히려 정부에 의해 다른 피해가 양산되었다. 피해자들의 지원받을 정당한 권리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피해자들이 “진상규명 없이 배·보상 절차를 받지 않겠다”는 말을 하도록 한 우리 사회의 잔혹함은 참사를 진행형으로 만들고 있다. 치유와 회복의 권리는 정당한 권리임과 동시에,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로부터 치유와 회복은 시작된다.



▲ 4.16 인권선언 추진단 제안 카드뉴스 중 (출처: 4.16연대) http://416act.net/index.php?mid=decl_achive&page=2&document_srl=2874

2. 세월호 참사 피해 규모는 총체적이고 지속적이다.

세월호 참사는 많은 피해와 피해자를 남겼다. 피해는 총체적이고 지속적이다. 우리 사회는 재난참사 피해와 피해자에 대해 아직 제대로 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피해자들을 다시 정의하고, 그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요구하고 있다. 언제까지 당사자와 가족이 모든 고통을 안고 살게 할 수는 없다.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지와 응원의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 지원 제도와 시스템을 총 점검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피해자들이 겪을 다양한 심리적 외상은 평생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과제다. 트라우마는 속성상 완화될 수 있을지언정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지속되기 마련이다. 이에 국가와 사회는 생애주기 전반에 맞는 지원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재난참사 뒤에 참사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교훈을 찾아 같은 유형의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추모사업에도 소홀했다. 세월호 참사를 국가와 사회가 기억하는 일은 재난참사의 재발을 방지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의 표현이다. 추모하는 일은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을, 상생과 협력보다 경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풍조를 일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기억과 추모, 치유, 안전을 위한 추모사업이 되도록 유무형의 사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사회적 여론을 불러일으키며 이를 통해 추모사업의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피해자 참여 없이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원과 추모사업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 우려되는 점은 지원과 추모 관련된 일을 국무총리 산하 지원·추모위원회에 일임하고 방관하는 일이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으로 설립된 특별조사위원회는 피해자 지원과 추모사업에 대한 원칙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피해자들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지 짚어보자.

3. 치유와 회복을 위한 권리

피해자는 피해 당사자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 위험 신호이며, 동시에 존엄 회복의 주체이다.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대책이 짜여져야 하며, 이는 피해자의 권리

다. 다시는 이러한 재난과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피해자는 참사 직후에 이루어진 활동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 발생 가능한 피해를 고려해 생애주기에 따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당국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점검하고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피해자의 범주에 당사자와 그의 가족뿐 아니라 구조와 지원과정에 참여한 이들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피해와 유관한 범위에 노출된 참사 피해자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피해 범주 역시 생명과 신체, 정신적, 재산상 직접적 피해는 물론 구조활동·피해자 지원 과정과 언론보도·불건강한 사회적 소통방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2차적 피해를 포괄해야 한다. 충분하고 적절한 지원받을 권리는 피해자가 가지는 당연한 권리다. 또한 추모와 기억할 권리는 또 다른 재난을 막고, 피해자를 치유하기 위한 권리다. 추모와 기억의 권리를 막탈당하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는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 피해자들의 의견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표현하지 않고 참아내는 고통도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현대의 모든 재난참사 발생은 사회적 원인과 맞닿아있기에 책임도 사회가 나누어 가져야 한다. 따라서 모든 재난참사 지원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국가 지원 범위는 치유를 위한 공동체 지원까지 포함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평등하고 차별 없이 권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 접근에 있어 권리 침해 없이 친절한 정보 제공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절차는 간소하고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와 사회가 기억해야 할 내용과 방식에 대한 연구와 조사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유무형의 추모사업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피해자들과 시민들을 위한 추모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추모사업은 추모(기억), 안전, 치유, 교육 내용을 포함해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추모사업은 과거의 슬픔을 딛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접근성, 지속성, 정서적인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모사업은 정치적 고려보다 피해자 입장에서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치유와 미래세대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은 운영과정에 참여하고 갈등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력 받아야 한다. 세월호 선체와 교실, 유품 등 진상 규명 및 추모와 기억에 관련된 모든 것은 신중히 보관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은 진상규명이 끝난 후에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 설명과 사과가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비용을 치루는 것은 우리 사회의 마땅한 의무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 뿐 아니라 기업과 언론도 치유와 회복의 의무를 진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 또한 피해자들이 원래 삶으로 복귀하도록 함께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덧붙임

박진 님은 다산인권센터 활동가입니다.

인권오름 제 453 호

[웹진6호] 4.16 인권선언 운동 활동일지(8월3,4주~9월 1주)

by 인권선언416 posted SEP 07, 2015

웹진 6호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인권선언활동일지
8월 3~4주, 9월 첫째주

★ 2015.8.18. 기획강좌 <세월호 참사, 인간의 존엄을 묻다> 1강 : 국가범죄에 관한 시선들 (이재승) @전교조 서울지부

★ 2015.8.20. 기획강좌 <세월호 참사, 인간의 존엄을 묻다> 2강 : 세월호, 묻히고 있는 진실 (박주민) @전교조 서울지부



★ 2015.8.21. 신정동 성당 사회교리 모임의 풀뿌리토론, 20여명 참석 @신정동 성당



★ 2015.8.25. 기획강좌 <세월호 참사, 인간의 존엄을 묻다> 3강 : 세월호와 사회적 고통,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김승섭) @전교조 서울지부



★ 2015.8.25. 점검팀 회의 @416연대

- 풀뿌리토론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논의
- 소책자 검토 및 준비
- 웹진 점검

★ 2015.8.26. 국제개발협력 활동가 풀뿌리토론 모임 @참여연대

★ 2015.8.26. 4.16연대-민변 노동위원회 인권선언 토론회 @민변 사무실

★ 2015.8.27. <존엄, 안전을 만나다> 광화문 문화제 @광화문 세월호광장

- 인권선언 관련 내용 전시



- 기획강좌 <세월호 참사, 인간의 존엄을 묻다> 4강 : 안전한 사회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김혜진)



- ★ 2015.9.1. 점검팀 회의 @416연대
- 풀뿌리토론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논의
- 소책자 검토 및 준비

- ★ 2015.9.1. 기획강좌 <세월호 참사, 인간의 존엄을 묻다> 5강 : 재난시대의 혐오 (손희정) @가톨릭회관



★ 2015.9.3. 고양파주 풀뿌리토론, 50여명 참석 @주엽역 한실림생협



★ 2015.9.3. 기획강좌 <세월호 참사, 인간의 존엄을 묻다> 6강 : 인권의 동력, 연대 (류은숙) @가톨릭회관

★ 2015.9.3. 수원 희망샘도서관 풀뿌리토론

TAG • #웹진, #활동일지